

● 강의 목표

1. 시편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기
2. 시편 전체의 구조와 흐름 이해하기

■ 시편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기

1. '시편'의 정의

1) 시편(詩篇): '시를 모아 놓은 책'이라는 의미(한자 문화권의 번역)

- 70인역 성경(세투아진트(Septuagint), LXX,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의 전통을 따름

2) 프살모이스((ψαλμοι):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다'

- 예수님, 유대인들의 분류법(눅24:44) - 주후 1~4세기 정도

- 신약성경에서 '시편'이라고 개정개역 성경이 번역한 헬라말 단어는 주로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의미로 '찬양의 노래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들'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몇몇 시편에는 악기 이름들이 함께 언급되고 있으며 시편 4, 6, 54, 55, 61, 67, 76편은 대표적으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시편들이다.

- 시편에 언급된 현악기로는 수금(시 33:2)과 비파(시 33:2; 43:4; 57:8; 150:3)가 있다. 관악기에는 나팔과 호각(시 98:6), 통소(시 150:4), 관악(시편 5편의 표제)이 있다. 타악기에는 제금(시 150:5)과 소고(시 81:2; 149:3; 150:4)가 언급되고 있다.

- 영어 성경은 이 헬라어 단어를 '시'(psalm)로 번역했다.

3) 세페르 테힐림(ספר תהלים): '찬양의 책들' - 주후 5세기 정도 유대인들이 부르던 명칭

- 주후 5세기 정도가 되면 유대인들은 시편이라고 부르는 책을 '찬양의 책'이라고 불렀다.

-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때 '테힐림(찬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테힐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말 동사 '할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할랄'이라는 동사는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이 동사가 구약 전체에서 약 200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시편에서만 94번이나 사용되었다. 56%가 시편에서 쓰인 것이다. '할랄' 동사가 성경 속에서 200번이나 사용되었으니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이며, 그 가운데 90번이나 시편에 쓰였으니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 또한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할랄' 동사의 2인칭 복수 명령형이 '할렐루'이다. 여기에 여호와와 짧게 줄인 형태가 '야'이다. 그래서 '할렐루야(הלללוּהוּ)'라고 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2인칭 복수명령어'가 된다. 구약 전체에서 '할렐루야'는 시편에서만 집중적으로 쓰인다는 점을 볼때에도 시편을 '찬양의 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4) 시편 자체의 정의: '기도(테필로트)'

- 72편 20절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말한다. 72편은 2권의 마지막 시편이고, 그 다음은 제3권이 시작된다.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72편의 표제는 “솔로몬의 시”. 라고 되어 있는데 끝에 가면, 갑자기 위의 문맥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는 말로 끝내고 있다. 내용상 72편 20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기도와는 관련이 없다. 즉, 마지막 20절은 72편의 결론이 아니라, 1편에서 72편까지의 시편의 결론이라는 의미이다. 시편 스스로가 이제까지의 내용을 ‘기도’라고 요약하고 있다.
- 결론적으로 시편의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시(노래)’와 ‘기도’라고 할 수 있다.

2. 배열 속에서 시편의 의미 이해하기

1) 개역 개정 성경 배열

- 모세오경 -> 언약 백성의 형성과 언약 백성 삶의 원칙들 세우기
- 역사서 -> 깨어져버린 믿음의 원칙들
- 시가, 지혜서 -> 원칙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의 지혜와 노래
- 예언서 -> 깨어진 원칙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 신약성경 -> 구약에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

2) 히브리어 성경

- (타나크 -> 토라(율법서), 느비임(예언서), 크투빔(성문서)의 첫 히브리어 자음의 조합)
- 율법서 -> 언약 백성의 형성과 언약 백성 삶의 원칙들 세우기
- 예언서 ->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믿음의 원칙들과 그로 인한 심판과 회복
- 성문서 -> 원칙들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노래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

3. 저자

- 1) **다윗:** 가장 자주 언급됨(**73편**), 시편 3-41편(여기서 10, 33편은 제외될 수 있음), 시편 51-70 138-145편, 작은 형태의 시(86, 101, 103, 108-110, 122, 124, 131, 133)
- 2) **아삽:** **12편**(50, 73-83)로 구성되어 있음. 아삽은 다윗 시대에 예배 음악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의 음악가였으며(대상 15:17-19; 16:4-5), 그의 후손들도 대대로 예배음악에 종사했다(스3:10).
- 3) **고라 자손들:** **11편**(42-49편)과 시편 84-88편(86편은 제외)인 것으로 보인다.
고라 자손들도 레위인으로서(대상 6:22) 성전의 음악을 담당했다.
- 4)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0~134편.
이스라엘의 절기동안이나 절기 바로 직전에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 5) **개인의 시들:**
솔로몬(72, 127편), 모세(90편), 에스라 사람인 헤만(88편), 에스라 사람인 에단(89편)

- 시편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지금의 모습과 같은 형태로 집대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게 된다(모세~포로기 이후).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의 시편이다. 반면에 시편 137편, 126편, 107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쓰인 시편들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시편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집대성되는 기간은 모세시대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까지라는 결론이 나오며, 이 기간을 시간상으로 보면 대략 천년이 넘는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수히 많은 시편이 쓰였고(왕상 4:32) 그중에서 150편이 모인 것이다.

4. 시편은 어떤 책인가?

- 시편은 ‘노래(시)’와 ‘기도’라는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래와 기도의 가장 주된 내용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노래와 기도이다. 즉,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이 무참하게 깨어져 버린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래하며 기도한 내용이 바로 지금의 시편이다.

■ 시편의 전체 구조와 흐름 이해하기

5. 전체 구조

- 구약성경의 삼분의 일은 시문으로 되어있다. 구약성서 중 시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은 책은 7권(레위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말라기)뿐이다. 이렇게 성경이 시적인 문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오랜 세월 민중에게 노래로 구전으로 전래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시편은 모두 150편,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 : 1-41편, 마무리 41, 13

제2권 : 42-72편, 마무리 72, 18-20

제3권 : 73-89편, 마무리 89, 52

제4권 : 90-106편, 마무리 106, 48

제5권 : 106-150편, 마무리 150편

1) 5권의 구분 기준

제1권 마지막 구절 - 41편 13절 / [송축할지로다\(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

제2권 마지막 구절 - 72편 19절 / [찬송할지어다\(바루크 웹\) ~아멘 아멘](#)

제3권 마지막 구절 - 89편 52절 / [찬송할지어다 \(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아멘](#)

제4권 마지막 구절 - 106편 48절 / [찬송할지어다\(바루크 아도나이\) ~아멘](#)

제5권 107~150편 / [대부분이 찬송, 송영, 할렐루야\(너희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6. 시편의 양식(Form)

- 시편 연구에서 20세기 초의 궁켈(Herman Gunkel)의 업적은 중요하다. 그는 문학 단위들의 유형, 또는 양식들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시편을 ①찬양 시, ②개인 탄원시, ③개인 감사시, ④공동체 탄원시, ⑤제왕시 등의 5가지 중요한 장르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⑥공동체 감사시, ⑦순례자의 노래, ⑧축복과 저주, 지⑨혜시, ⑩의식 시, 등으로 구분하였다. 시편의 양식을 나누는 기준은 학자들마다 기준과 견해가 다르다. ‘시와 찬미’수업에서는 이 많은 양식을 가장 크게 세 부분으로 통합해서 탄식시, 감사시, 찬양시의 관점으로 구조화 시키고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7. 전체 내용흐름

1) 탄식시(1-3권) -> 왜 멸망하고 말았는가?

- 시편에서 탄식시로 분류되는 시들은 150편 전체에서 거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탄식시들은 압도적으로 전반부인 1~3권에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1, 2권에서 대부분 다윗의 이야기들이 다뤄지고, 시편 3권에서는 솔로몬의 분열 왕국시대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 놀라운 점은,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나오는 1~2권의 내용도 거의 탄식시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3권에서는 나라가 분열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당하는 역사를 말한다는 점에 있어서 탄식에서 파멸로 내용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 실제로 3권에 속해 있는 74, 79편에 보면, 예루살렘성이 적들에 의해서 포위되고 함락당해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진 내용이 나온다. 3권의 마지막 시편, 89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왕조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윗 가문의 인간 왕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머리에서 왕관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지시는 내용이 나온다.
- 내용을 정리해보면, 1~2권까지는 믿음의 온전한 왕 다윗의 모습이 제시되고, 3권에서는 열왕들이 다윗왕과 같이 정직한 길을 걷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멸망의 원인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래서 1~3권까지 내용은 온통 탄식이 가득하다. 3권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라는 물음으로 끝이 난다.

2) 감사기, 제왕시(4권) ->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 이러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왕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신다. 1권, 2편에서 ‘제왕시(왕의 등극)’가 등장하고, 2권 마지막인 72편에 ‘제왕시’가 다시 등한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인 89편에서도 ‘제왕시’가 등장한다. 이 ‘제왕시’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4권부터 제왕시의 핵심 메시지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대해서 노래한다. 4권에 들어있는 시편들이 대체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노래한다.

4권에 앞에는 이러한 시가 없다. 1~2권에서는 온통 탄식이고 급기야 3권 마지막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다, 나라가 망하고 다윗 왕가가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 끝인가? 희망은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끝날 때 4권에서 여호와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어 통치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답을 주고 있다. 그리고 4권의 마지막 106편을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 달라는 소망을 담은 간구로 마치게 된다.

3) 찬양시(5권) -> 회복케 하신 또한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

- 그리고 시편 5 권(107-150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5 권의 처음 시인 107편은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5권의 가장 주된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주를 이룬다.
- 신구약 중간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난 후에 깨닫게 된다.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게 된다. 그리고 고백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나라라 이 백성이 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경제력이 약해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지 않았음을,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시편의 고백을 통해, 탄식 밖에 나오지 않는 세상이지만 여호와가 아직도 왕이시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회복의 날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한다.